

##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 한국기업의 집단주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Mai Kim Chi & Nguyen Thi Ly

한국은 1988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소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1월 22일 베트남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뒤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다. 최근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상위 3위권 내의 대투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사회문제로 주목되고 있다. 이 갈등들은 궁극적으로 문화 차이 또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는 Hofstede의 기업 문화와 집단주의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대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집단주의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노사갈등 및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기업 경영 문화에 있어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반면, 베트남은 수평적 집단주의 특성이 뚜렷하다. 이러한 특성 차이 때문에 단일한 구성원이 아닌 복합 구성원이 있는 해외 진출 기업, 즉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구성원을 가진 대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서는 노사관계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가족주의 경영, 수직-위계질서 경영, 조직 내부 신뢰감-소속감 같은 조직 내부 구조 및 경영을 살펴볼 때,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 종업원 간에는 집단주의에 대한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장벽은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베트남 종업원이 한국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간 의사소통과 함께 조직 내부 규정에서의 공정성과 명백성이 필수적이다.

Mai Kim Chi는 베트남에의 해외직접투자 (FDI) 현황 및 경제적 효과: 한국의 FDI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외에 한국의 해외 진출 원동력 및 베트남과 한국의 투자환경 경쟁력에 대한 연구, 한류가 베트남 FDI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국제세미나에서 논문을 냈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와 한국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Nguyen Thi Ly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단국대학교 국제교육센터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의 한국어 강사로 재직하였으며, 2017년 5월부터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경제과에서 무역, 투자 보좌 역할로 근무하였다. 2021년부터 4월부터는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시: 2021년 06월 1일 (화), 10:30-12:30

장소: Zoom Meeting & YouTube